

[TV]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진구 "연기가 재미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화 '비열한 거리'의 조직폭력배역...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연기 '화제'

영화 '비열한 거리'(감독 유하, 제작 싸이더스FNH)는 조인성이라는 청춘 스타를 다시 보게 하는 영화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한 명의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주인공의 오른팔 역을 맡은 진구(26)가 조인성의 "비열한 거리"의 숨은 '비열한(卑劣漢)'이다. "정찬을 많이 듣고 있어요. 좀 말할 따름입니다." 극중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하는 구릿빛의 조직폭력배 주수. 진구가 연기하는 주수는 영화를 양분하는 역할을 한다. 전반부에서는 주인공의 믿음직한 부하로서 순박하기까지 했던 그는 그러나 후반부에 진짜 비열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그의 구수했던 사투리 역시 섬뜩하게 들려온다.

영화 '비열한 거리'의 조직폭력배역...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연기 '화제'
돈이 아까워 그렇게는 못했고 잔인한 생각이 많이 했어요. 또 마침 중요한 장면 촬영을 앞두고 급체하는 바람에 촬영 당일 얼굴이 퉁퉁 부는 등 질로 느낌이 살았어요."
그가 지금의 주목을 받기까지는 3년6개월이 걸렸다. 드라마 '울인'에서 이병헌의 아역으로 데뷔했을 때만 해도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줄 알았다. 당시에는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초짜' 신인임에도 하루에 팬레터가 200통씩 쏟아졌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사자라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영화 '낭만작곡가'에도 오르게 됐지만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울인" 이후 어린 마음에 바람이 잔뜩 들었죠. 한번에 주목을 받으니까 세상이 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팬레터가 한통도 안 오더라고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제가 부각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하 감독은 그에게 "웃으면서 칼집을 놓을 수 있는 눈"을 주문했다. "정 못하겠으면 100만 원을 들고 경마장에 가보고 하셔요. 그 돈을 다 잃으면 눈에 독이 생길 것이라면서요.



의 진구는 "연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제야 아주 조금 알게 됐다"면서 "보여줄 게 많다. 지켜봐달라"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Living TV 외일드온 - 할리우드나이트 (오후 5시 50분)
지극히한 문화와 이벤트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행사를 소개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 이번 편에서는 세계 여행과 댄스클럽 등 화려한 밤 문화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외일드 온의 진행자 선발 최종 결승전이 펼쳐진다. 수만 명의 경쟁자 중 본선에 오른 12명의 후보들 가운데 단 1명만이

케이블·위성TV 20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PBC 광주광역시방송
www.kjpbcc.com

TBN 교통방송
www.tbn.co.kr

BBS 불교방송
www.bbs.co.kr